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감싸안고 있는 하늘처럼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시린 우리를 이불처럼 포근하게 덮어주십니다. 불신과 절망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소중히 가꾸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너그럽고 진실하고 정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은 좁고, 우리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드러낼 용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심껏 수행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76. 취임식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23. 주께로 한 걸음씩	다함께
성경봉독	딤후1:12-17	권혁순 집사
찬 양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찬양대
말 씬	본이 되는 사람들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72. 나 말은 본분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겨 정성을 다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는 투덜거림과 원망의 말을 버리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을 디딤돌 삼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잇속에 기울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 친목회	말씀 : 김재흥 목사
주관 : 제3남선교회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양재성 목사	장성호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박미영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김인걸 유영남 송양진 박홍재

사로잡힌 느낌

오늘은 정말 지독하게도 울적한 기분이다.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나를 사로잡은 기분은 더없이 강력하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거세게 휘어잡고 있어 '빛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사람들이 내게 인사도 없이 떠나고, 이기적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편지하지 않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송별연회를 가지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전에 약속한 일들을 해주지 못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다.

갑자기 무엇을 잃어버리고, 연결고리가 끊기고, 잊혀지고, 외톨토리가 되고, 쓸모없어지고, 조롱당한 것만 같고,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화나고, 회한이 일고, 오기가 생기고, 한없이 처량한 느낌이 든다. 실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내 감정적 균형이 이토록 섬약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상태를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기가 이처럼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다.

오늘의 복음이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만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빛을 보고 싶다면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니고데모야말로 영광없는 내 모습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요한 3:19)

내 안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괴상한 취향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빛 속으로 나아가기를 꺼리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에 파묻혀 좋아하고 있는 꼴이다. 예수께서는 빛을, 진리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밀고 계신다. 그분은 내게 거처할 굳건한 사랑을, 서 있을 단단한 토대를, 믿고 의지할 성실한 현존을 마련해주고자 하신다. 하지만 내면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나다.

그런데 이 모든 거부감은 어찌 된 것일까? 나를 끌어당기는 어둠의 이 강렬한 매력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예수는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

다. 그것은 자기 행실이 폭로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갑니다.”(요한3:20-21)

이것은 내가 품은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빛보다 내 어둠을 선호하곤 한다. 내가 걷는 길들이 상당한 만족과 자신감, 상당한 자존심을 부여하는 까닭에 나는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이 제한된 쾌락들을 모두 잃고 내 삶을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삶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빛 속에서 산다는 것은 곧 선하고 아름답고 찬사받을 만한 것 일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좌절감에서 건져내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밖에 없다. 이것은 명확한 길인 동시에 대단히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쓸모없는’ 기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실함을 지키는 것이다.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을진대, 나는 날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최소한 한 시간은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느냐, 쓸모 있느냐, 실용적이냐, 결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부차적인 것일 따름이다.

완전한 혼란 속에서 산더미 같은 분심에 짓눌리면서도 매일 아침 한 시간씩—나날이, 다달이—하나님의 현존 안에 앉아 있는 사이에 내 삶이 철저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 나를 단죄하기는커녕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나는 매번 그 시간이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른 번 아니면 예순 번 아니면 아흔 번을 그렇게 보내노라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홀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터득하게 되리라. 아주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소란스럽기만 한 내 자리 저 너머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계셨음을 점차 깨닫게 되리라.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 마/음/으/로/워/는/글

<찬양대원 명단>

대장: 한상익 총무: 조항범 지휘자: 윤주원 반주: 최윤선 최미선
소프라노: 송양진 정영선 이은자 한선희 오현정 정현주 김명희
구명자 임수연 김수연 정미경 박경원 신윤정
앨 토: 정옥영 최성애 윤수진 홍선희 김재영 박시내 최윤희
테 너: 한상익 김근종 안길상 장재영 이광섭 임원민
베 이 스: 조항범 안종일 이한립 김창원 임종길 최명동 김남홍 박운양

<교회학교 교사>

교장: 김인걸 교육전도사: 이성운 최인환
유 아 부: 한선희 최희영 이수정 정지은 윤정화 김수진
유 치 부: 권미정 이영란 권 순 임재현
유초등부: 노순옥 광권희 유경순 이명희 김지은 김태환 장현애 안 훈 오선영
중고등부: 문영혜 조운숙 황경순 조관행 한지혜 장성호
청 년 회: 조항범

<각급 학교 졸업생>

유 아 부: 조윤기 장주연 안혜지 송희원 서장군
유 치 부: 권용민 조혜린 고보영 서형석 조은혜
초등학교: 최다미 허재영 고정한 윤예윤 이성익 박세환
중 학 교: 송진옥 이금나 이성경 이세리 최혜연 김지수 한가람
고등학교: 김태환 심재용 임재현
대 학 교: 김남홍 고은숙 이준하 임고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이한림 김명희 정현주 안종일 장영숙 박애순 백묘현
 조문규 진정숙 백승민 유명숙 김용길 최영혜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은옥 이유선 방극숙 윤미경 서원금 박영희 김윤수 박옥경 김순복
 전영웅 최미선 임보람 노용래 이예정 김재흥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김중수 이순정 임승동 백혜숙 김용원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장재영 김재영 정미경 유증희 이재문 김수연 문금석
 이광섭 정두리 박석희 조항미 김종문 지명주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송의섭 노미향 권미정 이증자 김창경

감사헌금:

한인철 조윤숙 장현애 장영숙 백숙현 이봉옥 박홍엽 이인섭 김 극
 청년부 무명1

생일감사헌금: 한인철 문금석 장혜숙 정두리 이광용 이성익

구도헌금: 장혜숙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오 송 경	조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서 정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경 수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오 복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구 명 자	정 현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김 윤 정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명** : 예배 중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2. **졸업** :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의 때를 맞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원합니다.
3.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임원친목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임원 환영회를 겸한 임원 친목회가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사권의 시간에 꼭 동참하십시오.
5. **청년집회** : 오늘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청년집회가 청년부실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청과의 모든 젊은이를 초대합니다.
6. **새만금 기도회** : 생명의 보고인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기독교인들이 2월 13일에 새만금 해창 갯벌에 모여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교회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7. **담임목사**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들과 13일부터 25일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지(터키, 레바논, 시리아)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8. **신앙실천** :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헌화 : 조혜린 (생일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